금주의 법구-〈중부경전〉
지나간 것은 쫓아가지 말라.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
'지금 여기'를 살도록 노력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11월 16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26호 2016년 12월 14일 수요일



조계종은 1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즉각 퇴진만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호소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조계종 "차 대통령 즉각 퇴진"

12월 6일 종단 첫 입장 표명… '범불교시국회의' 출범도

전무후무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조계종이 마침내 죽비를 내리쳤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연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기성 종단으로는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그간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불교시민사회 단체 33곳도 '범불교시국회의'를 발족해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즉각 퇴진만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념 스님, 중앙종회 의장 원행 스님, 호계원장 성타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육문 스님 등 종단 지도부가 사실상 전원 참석했다.

자승 스님은 "대통령은 민심을 천심으로 여겨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작금 상황서 조건 없는 즉각 퇴진만이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힘줘 말했다.

여야 정치인들에게도 "현 사태의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심을 바로 본다 하되 바로 보지 못했고, 국가를 위한다 하되 그러지 못했다"며 "정치인들에게 기대는 마지막 기대가 대통령 탄핵에 있는 만큼 눈앞의 당리당략에 따르지 말고 민심을 올곧이 받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평화적인 촛불집회로 자랑스러운 해답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촛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새로운 미래,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원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엔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박근혜 퇴진과 국민주권 수호 범불교시국회의(이하 범불교시국회의)'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불교시국회의는 "주권자인 국민들은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명령했다.

불교계 "즉각 퇴진" 한 목소리
8일엔 국회 앞서 탄핵 촉구해
"국민과 함께 광장에 서 겠다"
정치권 '당리당략 경계' 경고도

하지만 박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 오로지 정권 재창출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지 말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각 물러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치권에 대해선 "정치적 계산이나 흥정을 통해 현 사태를 해결하다가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강력한 응징이 있을 것을 명심해야한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헌법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탄핵을 진행하라. 특히 새누리당은 당을 해체하란 민심의 뜻을 무겁게 읽고, 대통령 퇴진과 탄핵에 협조해야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범불교시국회의는 "작금의 사태가 야기될 때까지 침묵 · 방조한 데 대해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우리 불교도 내부의 성찰과 변화를 통해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스스로 혁신시키고, 국민들 뜻을 받들어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리 불자들은 시국의 엄중함과 절박함을 인식하고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국민주권 수호, 종교를 포함한 우리사회 적폐 해소 뿐 아니라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그물코처럼 연결돼 광장서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후 범불교시국회의는 첫 행보로 12월 8~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범불교시국회의는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대표 일문 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도철 스님 등이 박 대통령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하는 시민 촛불집회에 동참했다.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린 박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며 "국민의 힘으로 박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즉각 사퇴'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2면〉

노덕현 · 박아름 기자

제14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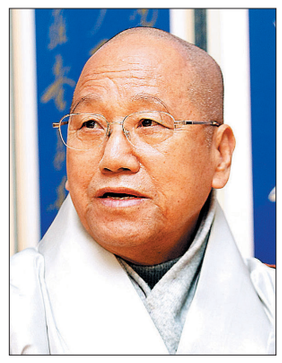
추대회의서 만장일치, 임기 5년

제14대 조계종 종정으로 진제 스님〈사진〉이 추대됐다.

조계종 종정추대회의에는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22명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 종회의장 원행 스님, 호계원장 성타 스님 등 총 25명이 참석해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2012년 13대 종정으로 추대된 진제 스님은 14대 종정으로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추대회의에서 종정으로 추대된 진제 스님은 1934년 경남 남해에서 출생해 1953년 해인사에서 석우 보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58년 통도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후 제방 수선안거에 매진했다. 1967년 향곡 선사와 법거량을 통해 깨달음을 인가받고 33세에 경허 · 혜월 · 운봉 · 향곡 선사로 이어진 선맥을 이었다.



전법에도 활발히 나서 1971년 부산 해운대에 해운정사를 창건하고 금모선원 조실로 추대됐다. 선학원 중앙선원 조실, 봉암사 태고선원 조실 등을 역임했으며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 조계종 기본선원 조실 등을 맡고 있다.

진제 스님은 1998년과 2000년 백양사에서 열린 무차선대법회에서 초청 법주를 맡았으며 2009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백고좌대법회를 여는 등 한국불교의 간화선 전통을 계승하는데 앞장서 왔다. 특히 제13대 종정 취임 후 간화선 부흥을 위해 2015년 5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만 불자가 참여한 간화선 무차대회와 간화선 대법회 등을 열기도 했다.

원로회의 사무처장 광전 스님은 종정추대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차기 종정으로현 종정 진제 스님께서 추대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며 "고불식은 연임이기 때문에 별로 없을 것이며, 13대 임기 만료에 맞춰 재추대 의식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 종정 스님은 수행자의 표상이고 종단 내 위상도 높아 종단 원로 스님들께서 논란없이 재추대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원로회의 사무처는 진제 스님의 임기는 내년 3월 2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종정 스님의 임기는 5년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도난 '송광사 오불도' 본래 자리 찾다

일정 당겨 8일 한국으로 환수
2~3일 美서 기증식 · 심포지엄


송광사 일화 스님과 현봉 스님이 미국 포틀랜드 박물관에 전시 중인 '송광사 오불도'에 예를 올 올리고 있다. 도난문화재인 '송광사 오불도'는 한국으로 12월 8일 반환했다.

내년 상반기 환수 예정인 도난 문화재 '송광사 오불도'가 일정을 앞당겨 한국으로 환수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12월 2일부터 3일까지 미국 포틀랜드 박물관에서 기증행사를 통해 현 소장자 인 마티엘리 부부로부터 '송광사 오불도'를 기증받았다"고 12월 6일 밝혔다.

송광사 오불도 기증식은 현지시간으로 12월 2일 열렸다. 이 자리에는 소장자 로버트 마티엘리와 송광사 일화 스님, 현봉 스님, 문덕호 시애틀 총영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인수인계 서명식이 진행됐다.

기증식 직후 일화 스님은 "오늘 기증받은 오불도는 53불을 그린 7폭의 불화 중 한 폭으로, 송광사 불조전에서 봉안하고 있던 그림"이라며 "이번 환수는 송광사에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이번 일을 바탕으로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불교 문화재들의 소식을 알 수 있는 큰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3일에는 송광사와 오불도에 대한 심포지엄이 포틀랜드박물관의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로버트 버스웰 UCLA 교수가 '송광사, 그 역사와 수행자의 삶'을, 마야 슈틀러 캔자스대 교수가 '삶과 죽음의 참회, 송광사 화엄사상의 복합성'을 각각 강연했다.

기증 행사 이후 12월 5일 송광사 오불도는 한국으로의 반환을 위해 포틀랜드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시켰으며, 7일 시애틀 공항을 떠나 8일 오전 11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한국 환수 이후에는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이운해 오불도 상태 확인 및 안정화 작업을 진행한다. 오불도 공개는 14일 기자브리핑과 함께 이뤄진다.

이번 환수에 대해 조계종은 "외국에 소재하는 도난 불교문화재를 적극 환수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난 불교문화재 기증자 및 해외박물관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2017년 상반기에 송광사성보박물관 개관에 맞춰 불조전에 오불도를 봉안하며, 봉안식에 마티엘리 부부와 포틀랜드 박물관 관계자를 초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광사 오불도는 '오십삼불도' 중의 하나로 〈관약왕약상이보살경(觀藥王藥上二菩薩經)〉을 근본경전으로 조성한 불화다. 이는 송광사를 비롯한 일부 사찰에만 전해져 희소성이 매우 높다.

신성민 기자

